

# 15세기 국어의 「—아잇—」 결합어형에 대하여

김 종 태

<목 차>	
I. 서론, 선행 연구 개관, 문제의 소재	3. 동사의 의미 특성과 「—아잇—」 결합어형의 분화
II. 본론	4. 조동사 구문의 특성과 aspect 및 modality
1. 「—아」와 「잇—」의 의미	III. 결론
2. 「—아잇—」 결합어형의 세 가지 유형	

## I. 서론, 선행 연구 개관, 문제의 소재

1.1 새로운 형태소의 형성은 그것이 형성되기 이전의 기존 형태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형태상의 변화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나 결합은 그 요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상호 대립하고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어의 변화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그 변화의 원리를 추적함에 있어서 주로 음운변화나 형태상의 관련성에 크게 의존해 왔고, 또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은, 특히 문법적 기능을 가진 한 형태소의 형성에 관한 고찰은, 그것의 형성과 관련된 공시적 완성체로서의 언어체계 안에서 그 형태소의 형성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그 형태소의 형태와 기능을 초래한 필연적인 요인을 추적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시언어학은 수많은 변화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쌓아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들을 유기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김종태(1986)에서 「—아 있다」 구문의 의미 구조를 논의하면서 이 구문을 이루고 있는 「—아」와 「있다」의 의미와 그들의 결합에서 나타나

는 분포적 제약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자각한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필자에게 할애된 지면의 제약때문에 이제서야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작업은 김종태(1986)에서 다루려 했다가 지면관계로 취급하지 못한 통시적 고찰 부분임을 밝혀 둔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김종태(1986)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부분을 논의의 편의상 재수록한 것이 부득이했음을 밝히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김종태(1986)이후 한동완(1986)의 작업을 접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상당 부분에 걸쳐 필자의 생각과 상충되는 점, 재론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한동완(1986)에 관한 부분은 주로 필자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해석상의 차이를 가진 것이며, 그것이 비록 필자의 생각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1. 2. 현대어에서의 「－아잇－」, 「－고잇－」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세기어에 나타난 이들 어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논의가 한산하다. 그것은 이들 어형만을 구체적으로 다룬 작업이 거의 없고, 15세기어의 다른 문법 체계와 함께 다른 연구에서 개론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차원에서 이들 어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말한다. 필자가 조사한 선학들의 의견을 나열해 본다.**

- 그러므로 ‘호야잇다’, ‘호옛다’, ‘호얏다’는 가까운 과거에서 시작된 행동이 지금에 이른 바 지속상이지 결코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다(이승녕 1961 : 206).
- ‘잇다’는 완료될 동작이나 상태가 사건 당시 내지 발화 당시에 지속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고 할 수 있다(고영근 1981 : 157).
- 「잇다」는 그 앞의 움직임들의 도움그림씨로 쓰이어서 그 본뜻을 버리고, 앞움직임씨가 나타내는 동작이 되어, 줄기 「잇」은 앞 움직임의 씨끝과 장차 더불어 「았」을 형성하는 길을 열어 준다(나진석 1971 : 283).
- 어미 ‘아’를 가진 副動詞와 다른 동사 어간의 합성이 현대국어에서는 매우 생활적인데, 이것도 중세어에서 볼 수 있다. (중략) 특히 위의 副動詞와 ‘이시/잇－’(有)의 합성은 동작의 완료상태를 표시하였다(이기문 1972 : 147)
- ‘어떠한 상태나 동작이 완료된 채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며(허웅 1981 : 421)
- 현대 말의 때때김의 안맺음 씨끝 「았/잇」은 「－아/어－」+「잇－」의 줄어든 형태인데 어형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잇다」를 대표로서 설명한다).

호야+잇다> 호옛다> 호얏다> 하였다

이중 「호야잇다」형은 분명히 두 날말의 연결체로서 「잇다」는 도움풀이씨이며 「호옛다」형도 「호야잇다」형의 단순한 음성적 축약형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i/ > /j/의 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두 어형은 같은 시기에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호옛다」는 역시 두 날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얏다」형은 /i/가 완전히 줄어져서 이미 두 날말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이 어형은 대체로 「호옛다」보다 뒷시기의 문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얏」만은 현대어의 「—았— /—았.—」과 같이 한 안랫음씨끝으로 보고 싶으나, 「호옛—」의 모든 활용형이 가진 의미 내용은 바로 「호얏—」의 모든 활용형이 가진 의미 내용과 꼭 같으므로, 「호얏다」형도 역시 두 날말로 분석하여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허웅 1981 : 426).

위의 논의들은 「—았—」의 형성을 「—아+잇—」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은 이미 정설화되다시피 했으며, 15세기의 문헌을 연대별로 정리해 보면 허웅(1981 : 426)에서의 요약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위의 논의들을 일단 궁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15세기의 「—아+잇—」의 결합은 현대어에서의 「—아+있—」과 같은 구조인가? 양자는 의미와 기능이 동일한 것인가? 즉, 현대어에서의 「—아잇—」은 15세기의 「—아잇—」을 그대로 전수한 것인가?

둘째, 15세기에서의 「—아잇—」이 「—았—」을 형성했다면, 현대어에서의 「—아잇—」은 무엇인가? 즉, 어떠한 「—아잇—」은 「—았—」을 형성하고, 어떠한 「—아잇—」은 그대로 남아서 현대어의 「—아잇—」으로 이어지는가? 이들을 분호시킨 원동력은 무엇이며, 또 15세기의 언어 상황에서 이러한 분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째, 완료, 지속 등의 의미는 각각 「—아」, 「잇—」에 따로 대응하는가? 아니면, 「—아잇—」이 완료나 완료지속의 의미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논의로서 필자는 오직 이기갑(1981)과 한동완(1986)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기갑(1981)은 「—아 있다」가 나타내는 대상을 '처소론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자세를 표명하고<sup>1)</sup>, 다음과 같이 주장하

1) 이러한 자세는 '고+있'으로 표현되는 이론과 진행상과의 구조적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기갑(1981:6) 참조. 처소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고영근(1980) 및 Anderson(1973) 참조.

였다.

① 완료(perfective)란 Comrie(1976 : 18)에서 지적된 대로 ‘하나의 상황을 점(point)이 아닌, 내부적 복잡성을 지니고 그 둘레의 한계가 분명한 하나의 물방울(blob)’로 파악하는 상의 양상이다. 따라서, 이 상의 개념이 내부적 복잡성이 없는 형용사적 상태성과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이라면, 앞서 든 경우처럼 15세기 ‘—아+잇—’ 구성이 형용사까지 포함하는 사실을 단순히 완료로서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완료된 동작이 더 이상 동사 고유의 역동성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 다름 아니라면, 이를 형용사와 함께 ‘상태’라는 의미 특질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p. 7).

② ‘—아+잇—’의 음운적 축약형인 ‘—잇—’은 과거 시제 형태소 ‘—았—’으로의 발달을 다리놓는 과도형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그 의미 기능도 원형에 비해 ‘지속’의 뜻이 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필자주: 이상은 허웅(1977)의 견해임].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적어도 15세기의 공시적 관점에서 는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다.(중략) 결국 15세기의 공시 관점에서 본다면 축약형 ‘—잇—’은 상태지속적 의미를 나타내는 원형 ‘—아+잇—’의 자유변이형 (free variant)인 셈이다(pp. 9~10).

③ 적어도 16세기 중반(물론 이 시기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에는 ‘상태지속’을 뜻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너벼 잇다 : 넓고 잇다

쓰어 잇다 : \*쓰고 잇다

\*신어 잇다 : 신고 잇다

\*씌어 잇다 : 씌고 잇다

(32)에서 별표(\*)를 한 형식은 문헌에 실증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들이 상태지속을 함께 뜻하는 한 그들의 의미기능은 겹치게 되며, 이같은 ‘동일 기능의 충돌’은 필경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을 내쫓게 되는 것이 언어 변화의 보편적 법칙인 것이다.

④ 15세기에서의 ‘—아+잇—’ 결합형의 세 가지 부류

1형. 살아 잇다 ; 끝이 있는 일부의 자동사(오늘날까지 쓰이는 유형)

2형. 넓어 잇다 ; ‘—아’와 ‘—고’가 병존하여 쓰이다가 오늘에 와서는 ‘—고’만을 허용하는 유형(착용 및 상태성 동사, 기타의 동사).

3형. 먹어 있다; 옛 언어에서는 쓰이던 것들이 현대어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부분(형용사, 타동사 및 자동사)

이상, 이기갑(1981)에서의 논의는 현대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동사의 종류에 따른 「—아+잇—」 결합형의 분포적 제약이 15세기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무제한에 가까운 생산성을 가진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며, 15세기어에서의 「—아잇—」 결합형을 현대어의 언어 적관력에 의하여 분류함으로써, 형태적 동일성에만 의존하여 막연히 '완료지속' '완료' 등으로 그 의미를 규정한 앞서의 논리들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갑(1981)에서의 논의가,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의문들 중에서 세번째 의문에 대해서만 간접적인 시사를 던져주고 있을 뿐(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할 것이다), 첫째와 둘째 의문에 대해서는 그 해결을 위한 타당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기갑(1981)에서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최근 한동완(1986)에서 상당히 보완되어 있다. 한동완(1986)에서의 논의에서 본고의 논의와 깊은 관련을 가진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5세기에 공존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잇—」과 「—잇—」은 통시적으로 다른 단계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공시론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

② '어잇' > '잇' > '잇'의 문법화의 사적 변화 단계

단계 I; 「—어 잇—」

[[V]—어—[잇]]

단계 II; 「—어 잇<sub>1</sub>—」 「—어 잇<sub>2</sub>—」 → 「—잇—」

[[V]—어—[잇]] [[V]—어잇—] [V—잇—]

단계 III; 「—어 잇—」                      ϕ                      잇

[[V]—어—[잇]]                              [V—잇—]

1단계; 문법화 작업이 수행되기 이전의 상황

2단계; 문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15세기 전후

3단계; 문법화가 완결된 17세기 전후의 상황

③ 「—어잇—」 > 「—잇—」 > 「—잇—」의 문법화 과정은 결과 상태적 의미에서 완료상의 단계를 거쳐 과거 시제의 소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④ ‘一엇一’의 문법화는 당시 과거계 어미들의 불안정성, 특히 의미영역의 공백에 기인한다. 그 의미공백이란 추론과거의 영역이며, ‘一어잇一’ 구성이 그러한 공백을 지시하게 됨은 형태 의미면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한동완(1986)에서의 논의는 이기갑(1981)에서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지적하면서 동시에 「一아잇一」에서 「一앗一」이 형성되는 과정을 ‘文法化’라는 용어로 요약 정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앞에서 제기한 두번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15세기의 언어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언어자료를 통하여 나타난 당시의 언어현상을 해석하는 문제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고는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앞에서 든 두 분의 견해를 자주 지적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논리가 필자의 견해와 여러가지 면에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나) 15세기의 「一아잇一」 구문을 다룬 연구들로서 필자가 발견한 것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1. 3 본 연구에서 인용한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 현 명	연 대	약 호
龍飛御天歌	1445	용
釋譜詳節	1447	석보
月印釋譜	1459	월석
楞嚴經諺解	1462	능엄
分類杜工部詩諺解(초간본)	1481	두언
南明泉禪師繼頌諺解	1982	남명
金剛經 三家解	1482	금강삼가
二倫行實圖	1518	이륜
佛說大父母恩重經	1553	온중경
朴通事 諺解(중간본)	1677	박통중간

## II. 본 론

2. 1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여러 문헌과, 현대어에서의 「一아잇다」와 「一았一」의 의미를 통하여, 필자는 「一아+잇一」의 결합형에서 「一앗一」이 형성되었다는 기존의 논리를 일단 긍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

한다.

첫째 「-아+잇-」 결합형에서 「-아」의 원초적 의미는 ‘완료’이며 「-잇-」이나 현대어의 「-았-」이 가지는 ‘완료’의 의미는 「-아」의 그것에서 유래한다. 「-아」의 의미를 완료로 보는 것은 이미 김종태(1985)에서도 밝힌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① 현대어 ‘V<sub>1</sub> 어—V<sub>2</sub>’의 결합형을 살펴보면, 조동사 구문으로서 V<sub>2</sub>의 어휘적 의미가 소실되어 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V<sub>1</sub>이 V<sub>2</sub>에 대하여 원인, 수단, 과정이 되며, 시간적으로 V<sub>1</sub>이 V<sub>2</sub>에 선행한다. V<sub>1</sub>과 V<sub>2</sub>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결어가다’와 같은 어형은 합성동사로서 한 단어로 취급된다. V<sub>1</sub>이 V<sub>2</sub>에 대하여 원인, 수단, 과정이 되는 경우, V<sub>1</sub>은 V<sub>2</sub>의 수행 이전에 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2)</sup> 15세기어의 여러 「-아잇-」어형 중에는 현대어의 「-아잇-」의 소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필자는 이 유형이 15세기어의 여러 「-아잇-」 결합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이라고 생각한다.

(1) 미친 사롭마티 빛고래 수며 겨샤(석보 6:4).

比丘 | 蓮入去 우희 안자 잇거들(석보 24:16).

王이 威嚴이 업서 누미 소내 쥐여 이시며(월서 2:11).

遯子 | 오래 뱃지 가 이소니(두언 6:43).

② 15세기의 문헌에서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안맺음 씨끌 「-아-」와 형태적으로 동일하다.<sup>3)</sup>

(2) 네 허마(釋迦를) 만나수바니(만났으니) 前生 그 罪業을 어루 머스리라(월석2:62).

四海를 平定한 자 길 우희 糧食 너치니 (잇었으니)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 가(용:53).

닐햇 조식에 네 快樂을 전갓 허얀다(하였느냐?)(석보 24:28).

王入中엣 尊호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히 威神을 일혀다(잃었다)(월석 10:9).

2) 김종태(1986, p.17) 참조.

3) 필자는 김종태(1985)에서 안맺음 씨끌 「-아/어-」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서법(modality)을 나타내는 「-가/거/나-」와는 다른 형태소임을 계열 관계 및 통합관계에 의거하여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하나의 어형이 그 고유의 의미(어휘의미)만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처한 통사적 위치에 따라 통사기능을 달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3) 東山 泰山이 어느 야 높듯던고(관동별곡, 송강가사 李選本).

城 안햇 사르미 다 와도 몯 드수 불리어니 너희 어느 드수 불마(석보 23:23).

이와 같은 예는 ‘어느(어 누)’가 대명사로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것과 부사로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15세기어에서는 맷음씨끝과 안맺음씨끝 사이에서도 이런 예를 볼 수 있다. 가령, ‘—은(ㄴ)다?’, ‘—을(ㄹ)다?’ 형에서 나타나는 안맺음 씨끝 ‘—은(ㄴ)—’, ‘—을(ㄹ)—’과 ‘—은(ㄴ)사롭’, ‘—을(ㄹ) 사롭’ 따위에서 나타나는 맷음씨끝 ‘—은(ㄴ)’, ‘—을(ㄹ)’은 그 형태는 물론이고, 각각 ‘완료’와 ‘추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이것을 sememe이라고 해도 좋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사기능만은 달리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사기능의 전용에 대해서는 이현규(1981)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으며, 그것을 요약하여 ‘體’(의미)와 用(통사기능)의 개념으로 기술된 바 있다.

15세기 국어의 「—아잇—」 결합형에서 맷음씨끝 「—아」와 ‘완료’의 안맺음씨끝 「—아—」가 형태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이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15세기어의 「—아잇—」형에서의 「잇—」은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지속’이란 어떤 행위가 완료된 상태에 있음, 어떤 행위의 결과가 유지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있다’에 호응하는 주어(agent가 아닌 subject)에 의하여 표현되는 실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무표적(unmarked)인 것이다.<sup>4)</sup> 이렇게 보면 15세기어의 「—아잇—」형은 기본적으로 ‘완료’의 「—아—」와 ‘지속’의 「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어형을 ‘완료지속’으로 해석할 경우 「—아—」와

4) 필자는 김종태(1986)에서 ‘있다’의 의미를, ‘없다’에 대립되는 상태성의 ‘있다’와 ‘안 있다’에 대립되는 동작성의 ‘있다’로 나누고, 이 중 상태성의 ‘있다’에 대해서는 주어로 표시되는 실체의 존재에 대하여 유표적(marked)인 ‘있다’(이것은 ‘없다’와 대립)와 무표적인 ‘있다’(이것은 주어의 실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있다’와 ‘없다’를 포함한다)로 나눈 바 있다. 특히 무표적인 ‘있다’의 의미는 ‘~의 상태에 있다’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잇—」은 각각 그들 고유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완료지속」으로 해석되는 「—아잇—」형을 15세기어의 여러 「—아잇—」 유형 중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러한 기본형에서 변형된(의미변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상태지속」(이기감: 1981)이라고 했을 때의 「상태」와 「완료지속」이라고 했을 때의 「완료」의 관계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동일 평면상의 대립적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이 두 용어의 사용에 어려움이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완료된 상태」, 「미완료된 상태」처럼 상호 비대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의 상태에 있다」를 「지속상태」로 받아들이고 「행위」가 완료되었다'를 나타내는 「완료」와 대립적 관계로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감(1981)에서처럼, 완료된 동작은 더 이상 동사 고유의 역동성을 지니지 못한 「상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가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상태」로 규정하려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에 의하여 완료된 동작은 그것이 상태성을 부여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태동사가 가진 상태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아잇—」의 결합이 상태동사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서 상태동사와 동작동사에 결합된 「—아」의 의미를 포괄하여 「상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태동사에 결합된 「—아」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엄연히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작동사에 결합된 「—아」마저 「역동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를 붙여서 「상태」라는 용어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상태동사에 결합된 「—아」의 의미는 상태동사가 가진 상태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다루어야 할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상태동사에 결합된 「—아」는 상태동사 자체의 상태성 때문에 「—아」의 고유의미인 「완료」가 표면화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면 국어의 상태동사가 가진 상태성과 완료된 행위가 가지는 상태성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4) a.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싸워 마침내 적을 물리쳤다.
- b. 그 여자는 너무나 예뻐(서) 천사로 불리었다.

Comrie(1978)에서 사용된 blob라는 용어를 끌어온다면 (4)a의 「싸워」로 나타나는 blob의 둘레는 그 한계가 한 시간이지만 「예뻐」로 나타나는 blob

의 한계는 분명하지 않다. 국어의 상태동사로 나타나는 상태는 그 종료의 한계를 분명히 그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그 여자는 5년동안 예뻤다.

나는 3시간동안 슬펐다.

(5)와 같은 예문은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5년동안’ ‘3시간’ 따위가 화자의 어림짐작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어색하기 짝이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4)a에서의 blob의 내용은 ‘행위’임에 대하여 (4)b에서의 blob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어」는 그 기능의 내용이 같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2.2** 그런데 15세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완료지속’으로 볼 수 없는 「—아잇—」 결합어형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의미상의 차이와 현대어의 언어적관력을 가지고 이들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완료지속’으로 해석되어 질수 있는 형이다. 이들은 그것들이 ‘완료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한, 현대어 「—아잇—」의 소급형이라고 할 수 있다.

(6) 내……하늘해 나아 門神이 爾 외야 잇노니(석보 6:20).

을 훈 너브로 누굽 겨시다가(석보 23:44).

예문 (1)의 용례들로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을 잡정적으로 X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둘째는 X형과 같이 ‘완료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어에서는 「—고잇—」의 결합형만을 허용하는 형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현대어에서의 언어능력을 무시하고 15세기 당시의 공식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X형과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형이다. 이것을 Y형이라고 부른다.

(7) 니벼 잇더신 鹿皮 오술 바사(월석 1:16).

쇠 그므리 셋두펴 잇거늘(월석 1:16).

世尊이……니벼 견 僧伽梨衣를 아수시고(석보 23:8).

녀 부데 無量無邊 聲聞弟子를 두 겨시니(월석 7:69).

이런 유형은 결합동사가 한결같이 [+transitive]로 되어 있어서 「—고」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一고잇一」 결합형으로 교체되어 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5세기 당시에, 그 용례는 극히 드물지만, 이미 「一고잇一」 결합형이 존재해 있었으므로, 「一아잇一」형과 「一고잇一」형이 동일한 동사에 결합되어 공존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8) 沙門이……도훈 香 뛰우고 잇거니(석보 24:26).

네……도훈 차반 먹고 이쇼더(석보 24:28).

내……環刀 1며 막다히를 두르고 이서도 두립더니(월석 7:5).

위와 같은 「一고잇」 결합형은 16세기나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그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9) 그 아운 세간늘 다 폐셜하고 잇꺼늘(이륜:2).

도경이 아오 좌경이와 소탕을 디리고 잇싸가(이륜:23).

여리히 세간늘 배오 이시니(이륜:25).

일시에 부터 왕사성의 데즈 삼만 팔천 두리고 겨시더니(은중경:1).

남는 이성의 이설제 한삼 넘고 죄 죄오 휘 신고 이설시(은중경:2).

위의 예문 (8)에서 우리는 15세기 당시에 ‘뛰우어 잇거니’, ‘머거 이쇼더’ ‘둘러 이서도’의 존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만약에 ‘머거 이쇼더’와 ‘먹고 이쇼더’가 15세기 당시에 공존했다면, 이 양자의 의미 차이가 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이들 사이의 의미가 15세기 당시로는 공식적 차원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와서 이들이 모두 「一고잇一」 결합형과 호응하게 되는 요인을 그 당시의 언어체계나 그들 어형 내부에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17세기 후반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문은 이들의 공존 기간이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0) 小人이……堂子人 브롭을 쓰이호여 브리워 잇노라(박통 중간상:51)

만약 이와같은 유형의 「一아잇一」과 「一고잇一」이 다같이 ‘완료지속’(이기갑(1981)의 논의에 따르면 ‘상태지속’)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그 공존기간이 너무 길다.

즉,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진 둘 이상의 형태가 뚜렷한 교체조건도 없이 (따라서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200년 이상 공존한다는 것은 안

## 12 嶺南語文學(第14輯)

어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로 보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것은 ‘완료지속’이라는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와는 다른, 어떤 차이점이 양자 사이에 개재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세째는, 앞서의 X, Y 형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一아잇一」 결합형이다. 이형을 잠정적으로 Z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11) 네 아래보티 부터를 외수하 헌니며 들판하 잇느니(석보 23:31).

兜羅錦은 다 아니 훌여 겨시거늘(석보 23:48).

尊者 | 世尊을 보수하 겨시니잇가(석보 24:44).

여기에서 「一아잇一」과 결합하는 선행동사는 X, Y형에서와는 달리 그 행위가 단지 완료되었을 뿐, 그 행위 자체나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X, Y형에서의 예와 비교한다.

(12) X. 比丘 | 蓮入곳 우희 안자 잇거늘.

Y. 니비 잇더신 鹿皮 오슬 바사.

Z. 尊者 | 世尊을 보수하 겨시니잇가.

X는 비구가 연꽃 위에 앉은 상태를, Y는 옷을 입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들은 각각 앉는 행위와 옷을 입는 행위가 완료된 뒤에,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오판에 의하여 감각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게) 지속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완료지속’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으나, Z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즉, Z의 경우는 존자가 세존을 본 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일 뿐 아니라 발화 당시에도 계속해서 존자가 세존을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발화가 아니다. 즉, Z에서의 ‘겨시다’는 이미 X, Y형에서와 같이 ‘~의 상태에 있다’로 해석되어 질 수 없다. 또, Z를 ‘존자께서 세존을 보신 상태에 계십니까?’ 그래서, 세존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체구 등, 세존을 봄으로써 연어진 기억이나 결과를 간직한 상태에 계십니까?’의 뜻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세존을 보신 적이 있읍니까?’ 또는 ‘세존을 보셨읍니까?’와 같이 단순한 경험이나 과거 어느 한 시점의 상황을 묻는 발화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X에서는 앉는 행위가 끝나고 그 행위의 결과인 앉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Y에서는 입는 행위가 끝나고 역시

그 행위의 결과인 입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Z에서는 보는 행위가 끝났음을 나타낼 뿐 그 행위의 결과나 행위 그 자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우리는 경북 북부지역의 일부 방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5)</sup>

## (13) 의 아재 와겟다(외아저씨 오셨다)

촌님(이) 언제 가겠니꺼? (촌님께서 언제 가셨습니까?)

아직 잡사아(잡솨아)겠니꺼? (아침밥 잡수셨습니까?)

필자의 견해로는 ‘와겟다’, ‘가겠니꺼’, ‘잡사아겠니꺼’는 각각 ‘와 계시다’, ‘가아 계시니꺼’, ‘잡수어 계시니꺼’의 변형이 분명한데, 이들은 단순히 ‘오셨다’, ‘가셨습니까?’, ‘잡수셨습니까?’의 뜻이지, 결코 ‘와 계시다’, ‘가 계십니까?’, ‘잡수어 계십니까?’의 뜻이 아니다. 방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예는 15세기 「—아잇—」 결합어형 중에서 Z형을 ‘완료지속’이 아닌 단순한 ‘완료’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방증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XY형은 ‘V<sub>1</sub>어잇—’ 구성에서 선행하는 V<sub>1</sub>과 ‘잇—’이 이른바 계기적 구조<sup>6)</sup>로 짜여 있으나 Z형은 그 구조 자체가 XY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서 나타난 「—아잇—」형과 「—고잇—」형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① 15세기 당시에는 「—아잇—」의 세력이 매우 강하여 그 결합동사에 제한이 없을 만큼 생산적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고잇—」의 세력은 극히 미약하였다. 이로 미루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어」 결합어형(계기적 구조 조동사문구조)은 이 시기에는 이미 완성된 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② 오늘날 볼 수 있는 동시성 구조<sup>7)</sup>의 「—고잇—」 결합어형(조동사문 구

5) 필자가 아는 바로는, 이러한 용법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에 산재해 있는 지역 중, 전통적으로 반촌(班村)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6) 이 용어는 김홍수(1977)에서 사용된 개념을 그대로 빌어 온 것이다. 즉, ‘V<sub>1</sub>어 V<sub>2</sub>’ 또는 ‘V<sub>1</sub>고 V<sub>2</sub>’의 구조에서 V<sub>2</sub>로 표현되는 행위가 V<sub>1</sub>으로 표현되는 행위에 연속되어 있음을 말한다. 가령, ‘잡아 먹다’는 ‘잡는’ 행위 다음에 ‘먹는’ 행위가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다만, 여기에서는 V<sub>1</sub>으로 표현되는 행위와 V<sub>2</sub>로 표현되는 행위(여기서는 ‘잇다’) 사이에 다른 어형이 개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속문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이 용어는 김종태(1986)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가져 온 것이다. 즉, 현대어에서 이른바 진행상을 나타내는 ‘V<sub>1</sub>고 있다’의 구조에서 V<sub>1</sub>으로 표현되는 행위와

조)은, 그 세력으로 보아 15세기 당시에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계기적 구조만이 일부 동사에서 그 초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진행상(progressive)은 하나의 상(aspect)으로서 정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③ 15세기 당시의 「一어잇一」 결합형이 나타내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것은 ‘완료지속’(X, Y형)을 나타내는 것과 ‘완료’(Z형)를 나타내는 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 다음에는 15세기에 ‘완료지속’ 또는 ‘완료’의 의미를 표현하던 「一아잇一」, 「一앳一」, 「一고잇一」, 그리고 「一앗一」은 당시의 언어체계 안에서 어떠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었는가를 살펴 볼 차례다. 이러한 대립관계를 15세기 당시의 언어 상황 속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대립의 형태를 재정립하게 된 소성을 이미 15세기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 위에서 이루어진다. 가령 위에서 말한 Z형과 같은 것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 데는 그만한 편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이기갑(1981)과 한동완(1986)에서 서로 정반대의 의견이 드러났던 「一아잇一」과 「一앳一」의 관계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다.

「一아잇一」과 「一앳一」은 15세기 당시의 공식적 언어 상황 속에서 서로 자유변이형(free variant)의 관계에 있었는가? 이기갑(1981)에서는 양자가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었다고 본 반면에, 한동완(1986)에서는 이들 두 어형에 후접되는 어미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다(즉 어미에 따라 분포상의 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양자가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허웅(1977)에서는 「一앳一」이 「一아잇一」과 「一앗一」을 다리놓는 과도형으로서, 「一앳一」이 「一아잇一」보다 지속의 뜻이 덜한 것으로 보았으나, 허웅(1981)에서는 ‘흐앳다’형이 ‘흐야 잇다’형의 ‘단순한 음성적 축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 주장의 일부가 가진 약점의 하나는 이 양자가 그 형태면에서 변화선상의 전후관계에 있다는 통시적 관점을 공시적 언어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두 행위는(실제로, ‘있다’는 상태를 표현한다) 동시에 수행되는 것으로 본다. ‘동시성 구조’라는 명칭은 이런 뜻에서 붙인 것이다. 김종태(1986:9) 참조.

투입시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동완(1986)의 견해나 허웅(1977)의 견해는 바로 이러한 통시적 견해가 공시적 언어 상황과 상충되는 점을 해명해 보려는 데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이들 견해가 가진 또 하나의 약점은 이 두 어형이 자유변이형이냐 아니냐 하는 흑백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결정지을 기준으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완료지속’이라는 의미와 이들 어형의 분포 환경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기준만을 놓고 볼 때에는 자유변이형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아잇—」, 「—앳—」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15세기에 이미 「—앳—」이 등장하는 데서 야기된다.

## (14) 北녀그로 劍閣보흘 벼햇기늘(두언 6 : 38).

野者】 이 \Console 田地를 어덧거니 엇데 시르미리오(남명하 : 57).

비는 고기 났는 그르시 득의얏고(금강삼가 3 : 60).

브덧는 모든 有(능엄 6 : 53).

위에서 논의한 Z형의 「—아잇—」이 ‘완료지속’이 아닌 ‘완료’만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앳—」과 같고, 따라서, 그 표면의미와 분포환경이라는 기준만을 두고 볼 때 Z형의 「—아잇—」과 「—앳—」 사이에도 자유변이형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아잇—」과 「—앳—」은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후술할 내용을 통하여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이들의 주장 중 일부에서 또 하나 지적해 두어야 할 약점은 ‘완료’나 ‘완료지속’과 같은 개념은 동사가 가진 중요한 의미속성의 하나인 상(aspect)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잇—」, 「—앳—」, 「—앳—」에 결합되는 선행동사의 상적 특성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Z형의 「—아잇—」이 X, Y형의 그것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미구조·상의 차이를 공시적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완료지속’의 「—아잇—」에서 ‘완료’의 「—앳—」으로의 형태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의미변화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동시대에 공존하는 언어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통시적 언어지식이 부정적인 역기능으로 나타난 한 보기가 될 수 있다.

이제 필자의 견해를 밝힐 차례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동완(1986)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한 지적이다. 이것은, 문현

에서 드러난 언어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잇－」>「－앳－」>「－잇－」의 대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는 이상, 「－아잇－」과 「－앳－」이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한동완(1986)에서의 근본 의도까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현상에 대한 해석이 어떤 변화의 추이를 공식화한 틀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때, 논리 전개의 편의와 해답의 명쾌성이란 강점을 가진 반면에, 자칫 현상 그 자체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위험성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 한동완(1986)에서는 「－아잇－」과 「－앳－」이, 후접하는 어미형의 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양자가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문헌조사로 나타난 통계 숫자가 당시의 언어 현상을 그래도 반영한 것인가의 여부는, 통시언어학과 자료의 한계라는 관계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시적 차원에서, 동일 환경에서 두 어형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빈도에 관계 없이, ‘출현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논리를 부정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 이들이 만약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 양자의 관계는 두 가지로 규정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 첫째는 서로 다른 형태소의 관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변이형태의 관계이다. 이들이 가진 의미나 형태의 유사성은 첫번째의 가능성을 회박하게 한다. 또 이들이 변이형태의 관계라면 그 조건은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음운론적인 것이요(phon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또 다른 하나는 형태론적인 것이다(morph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필자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 우선 음운론적 층위에서 살펴보자. 이들은 각각 [a-is]과 [ays]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주변의 음운환경에 의해서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어두와 어말이 모두 [a]와 [s]로 되어 있어서 같은 자극에는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형태론적 층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동완(1986)에서의 통계를 일단 인정한다 하더라도 후접하는 어미군을 부류화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필자가 아는 한, 국어에서는 후접하는 어사가 선행하는 어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그 형태에 있어서나 분포적 제약에 있어서나) 의미의 충돌에 의한 분포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음운론적 조건 밖에는 없다. 「－아잇－」과 「－앳－」의 의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후접하는 어미의 분포적 통계에 바탕을 둔 한동완(1981)에서의 주장은 언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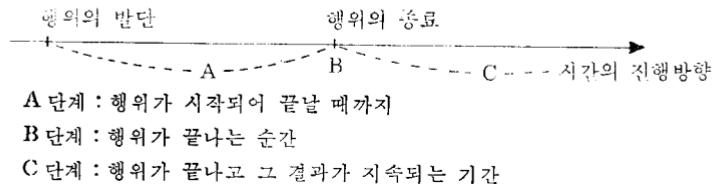
해석상의 원칙이나, 국어의 일반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볼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양자의 관계를 자유변이형으로 파악한 이기갑(1981)과 허웅(1981)에서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한다.

이제 「-아잇-」과 「-잇-」을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이상 우리의 논의는 「-아잇-」, 「-고잇-」, 「-잇-」의 삼자 대립에 관한 것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의 「-아잇-」 결합 유형(X, Y, Z)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현대어에서의 「-아잇-」 결합어형의 구조와 의미, 그 유형을 공식적으로 다룬 김종태(1986)에서의 논의 중에서 동사 자체의 상적 특성과 이에 따른 「-아잇-」, 「-고잇-」 결합형의 분포적 제약을 밝힐 부분을 요약하여 재수록한다.

하나의 행위는 그 출발점이 있고,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으며, 그 행위의 수행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유지(지속)시키는 심리적 기간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수반하여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언중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동작상(aspect)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그림 I〉



그러나 동작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모든 행위들이 위와 같은 A, B, C의 3단계를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다. A 또는 C의 단계를 가지지 않는 동사들이 있다. 이것을 자동사와 타동사에 따라 보기로 들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속성	+transitive	-transitive
I형 A.B.C	입다, 달다	피다, 눕다
II형 B.C	잡다, 알다	죽다, 도착하다
III형 A.B	읽다, 쓰다	울다, 싸우다

## 18 嶺南語文學(第14輯)

각각 A, B, C의 단계에 따른 세 가지 상적 특성에 의하여 분류된 위의 동사형 I, II, III이 현대어에서 「—아잇—」과 「—고잇—」에 결합되는 양상, 즉 그 분포적 제약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표 II〉 계기성 결합(완료지속)

	+transitive	-transitive
I 형		
II 형	고 <sub>2</sub> 있다	아 있다
III 형	(결합불가능)	

〈표 III〉 동시성 결합(진행)

	+transitive	-transitive
I 형	고 <sub>1</sub> 있다	
II 형	(결합불가능)	
III 형	고 <sub>1</sub> 있다	

(여기에서 「—고<sub>1</sub>」은 ‘진행’ 표시의 「—고 있다」에서의 「—고」를, 「—고<sub>2</sub>」는 ‘완료지속’을 나타내는 「—고 있다」에서의 「—고」를 나타낸다. 김종태(1986)에서는 이 두 개의 「—고」를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은 김종태(1986)에서의 논의 중에서 본고의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각각의 동사가 I, II, III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그 동사가 가지는 상에 대한 화자(청자)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가령, 위의 〈표 I〉에서 II형에 속한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표 III〉에서 보듯이 진행을 나타내는 동시성 결합이 불가능한데, 그것은 ‘도착하는’ 행위 그 자체는 도착점에 이를 때까지는 ‘도착한’ 것이 아니고, 또 도착점에 이르는 순간은 짧아서 행위의 진행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interval)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선수가 결승점에 도착하고 있읍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 말을 한 화자는 이미 ‘도착하다’라는 동사의 상을 위의 〈표 I〉 과는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동사의 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증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하나의 문이 비문이냐 정상문이냐 하는 수많은 논란이 동사의 상을 파악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15세기어의 「—아잇—」형으로 눈을 돌리도록 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어에서 동시성 결합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진행상’이 15세기에 하나의 상으로 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성이 거의 없는 이상, 본 논의에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기성 결합뿐이다. 우선 위의

〈표 Ⅱ〉를 보면 앞에서 분류한 15세기어의 X형은 [−transitive] I Ⅱ형 동사에, 그리고 Y형은 [+transitive] I Ⅱ형 동사에, 또 Z형은 Ⅲ형동사에 각각 대응됨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잠시 논의한 것처럼 XY형은 ‘완료지속’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Z형은 단지 ‘완료’로만 해석이 가능했다. 15세기에서의 Z형에 대한 해석을 현대적 언어 능력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15세기어의 동사와 현대어에서 같은 뜻을 가진 동사는 그 의미가 같은 이상 상적 특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개연성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예문 (12)에서 X, Y가 ‘완료지속’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은 각각 동사 ‘았다’와 ‘넓다’의 상적 특성 때문이며, 동시에 Z가 ‘완료’로만 해석될 수 있었던 것도 동사 ‘보다’의 상적 특성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15세기어에는 결합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계기적 구조를 가진 X, Y형과, 계기적 구조로 볼 수 없는 Z형이 공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어에서는 「—아잇—」 결합구조가(그것이 접속문구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두 계기적 구조를 가지는 체계로 변모되어 있으므로 15세기어에서부터 계기적 구조가 아니었던 Z형, 즉 현대어의 Ⅲ형 동사에 결합하는 「—아잇—」은 그 존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15세기어의 Z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가? 필자는 이것을 조동사문 구조로 파악하였는데,<sup>8)</sup> Z형을 조동사문 구조로 보는 경우 15세기어에서의 X, Y형과 Z형의 대립이나, Z형과 「—앗—」의 대립양상 및 이에서 부수되어 파생하는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15세기어에서의 XY형의 경우, ‘완료지속’으로의 해석이 가능함과 아울러 Z형과 마찬가지로 ‘완료’만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X, Y형의 「—아잇—」 결합형은 그 결합동사의 성격 때문에 계기적 구조로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동사문 구조로의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12)의 X, Y와 같은 예문은 두

8) 「—아잇—」 구조를 조동사문 구조로 본 것은 허옹(1979), 허옹(1981) 등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었으나, 다만 15세기부터 17세기경까지 걸쳐 나타나는 「—아잇—」 구조에는 계기성구조와 이에 대립되는 조동사문 구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김종태(1986)에서는 현대어에서의 「—아 있다」, 「—고 있다」 구문이 조동사 구문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종태(1936:15 주 11) 참조)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15) X. 比丘가 蓮꽃 위에 앉아 있거늘(완료지속)

比丘가 蓮꽃 위에 앉았거늘(완료.)

- Y, 입고 계시던 鹿皮 옷을 벗어(완료지속)

입으셨던 鹿皮 옷을 벗어(완료)

- Z. 尊者께서 世尊을 보셨습니까? (완료.)

따라서 우리는 15세기어의 XY형에 대해서는 중의성(ambiguity)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당시의 언중은 아마도 그 정확한 의미를 발화의 상황이나 문맥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는 현대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 a. 신사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

- b. 신사가 넥타이를 맨 상태로 있다.

- c. 신사가 넥타이를 매는 중이다.

(16)a에 대한 해석을 (16)b로 하느냐, (16)c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16)a가 발화되는 화용론적 상황이나 문맥에 의하여 분명해진다.

요컨데, 15세기어의 「—아잇—」형은 그 결합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계기적 구조와 조동사문 구조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여 ‘완료지속’과 ‘완료’의 중의성을 가지는 형과 (X, Y), 조동사문 구조로만 해석이 가능하여 ‘완료’의 의미만을 가지는 형(Z)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결합동사의 통사적 특성[transitive]에 따라 현대어의 「—아잇—」에 그대로 이어지는 형과(X형[−transitive]), 「—고잇—」의 세력 확장에 따라 「—고잇—」으로 교체되는 변화를 겪는 형(Y형[+transitive])으로 나누어진다. Z형의 경우는 「—아잇—」의 조동사문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현대어의 특성 때문에 오늘날 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조동사 구문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으로 볼 때 너무도 당연하다. 즉, ‘계기적 구조의 「—아잇—」>조동사구문의 「—아잇—」>새로운 형태소(—잇—)의 형성’이라는 변화단계를 우리가 「—아잇—」>「—아잇／잇—」>「—잇—」이라는 어형들에서 추론해 낼 수 있다면, 「—잇—」의 형성으로 이러한 변천의 단계는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것이며, 따라서 조동사구문의 「—아잇—」은 이미 현대어에서는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sup>9)</sup>

9) 이렇게 보면 김종태(1986: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아잇—」「—고잇—」구문의 부정에서 나타나는 조동사구문적인 특성은 하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을 가져온 요인이 되는 원동력은 결합동사의 상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이다. 상적 특성은 「-아잇-」과 「-앗-」의 의미분화를 촉진시켰으며, 통사적 특성은 「-아잇-」과 「-고잇-」의 분화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두 종류의 분화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있어서 이들 두 종류의 분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아잇-」: 「-앗-」)는 ‘완료지속’이거나 ‘완료’나 하는 의미에 직결된 문제이며, 후자(「-아잇-」: 「-고잇-」)는 통사적 효용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언어의 기능이 정확한 의미 전달에 그 일차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아마도 전자가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성이 크고, 실제로 15세기의 문현은 「-고잇-」보다는 「-앗-」에서 압도적으로 큰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15세기의 「-앗-」과 결합된 동사의 유형은 앞에서 지적한 중의성이 큰 X, Y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필자가 조사한 문현의 범위 안에서는 Z형의 용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앗-」의 의미 특성 및 통사 특성으로 보아 Ⅲ형 동사와 결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완료지속’과 ‘완료’ 사이의 의미 변별을 바라는 언중의 욕구가 직접 반영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즉, Ⅲ형 동사(Z)의 경우는 그것이 ‘완료’로만 해석되므로 ‘완료지속’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앗-」과 결합해야 할 절실성이 I, Ⅱ형 동사(X, Y)보다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17) 北너그로 劍閣모흘 버혔거늘(北斷劍閣隅)(두언 6:38).

野老】 이길호 田地를 어덧거니 엇데 시르미리오(남명 하:57).

그티 나라 다스릴 치조를 쟁진마론(子負經濟才)(두언 22:47).

비는 고기 낮는 그르시 듯의 앗고(금강삼가 3:60).

혜마 得흐 앗노이다(남명 상:53).

크릿논 모든 有(능엄 6:53).

三乘十二分教는 法華에 사경느느리라(금강삼가 2:41).

遼天鵠은 하늘해 머리 떴는 매라(금강삼가 2:55).

고기 잡는 사루미굽곳 마애 웃고 셋다(漁人이 笑立蘆花岸乞앗다(남명 상:46).

**2.4 뒤-음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잇-」, 「-고잇-」, 「-앗-」의 공존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앗-」이 이**

미 15세기에 의미, 형태, 기능면에서 오늘날의 「一았一」과 거의 같은 단계에까지 완성되어 있었으며 오직 그 분포만이 현대어와 달랐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갑(1981)에서 지적한 것처럼, ‘니벼 있다’, ‘넓고 있다’, ‘쓰어 있다’, ‘신고 있다’, ‘띄고 있다’와 같은 어형을 17세기의 문현에서 발견하게 된다. 논의의 편의상 ‘니벼 있다’와 ‘넓고 있다’를 살펴 보자.

만약 15세기에 「一았一」의 존재가 완전히 확립되었다면, 17세기의 ‘넓고 있다’는 ‘완료지속’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니벼 있다’는 위의 논의만으로는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료지속’을 나타낸다면 ‘넓고 있다’로 나타나는 것이 「一고一」의 세력 확장의 추세를 보았을 때 가능성이 더 높고, 만약 ‘완료’만을 나타낸다면 「一았一」의 존재가 확립된지 200년이 더 지난 17세기의 언어 상황 속에서는 ‘니벗다’로 나타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니벼 있다’와 ‘넓고 있다’가 17세기에 공존하는 현상에 대하여, 이기갑(1981)에서처럼, 양자의 의미를 다 같이 ‘상태지속’으로 보고, 그들의 의미기능이 겹치게 되므로 ‘이 같은 동일 기능의 충돌은 필경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을 내쫓게 되는 것이 언어 변화의 보편적 법칙’이라고 간단히 보아 넘겨 버리면, 17세기에 존재하던 ‘니벼 있다’형이 오늘날 사라져 버린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언어 변화의 보편적 법칙’이 기여하게 되지만, 15세기부터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양자가 공존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게 된다. 즉, 이들의 공존 기간이 200년이나 된다는 사실, 따라서 아무리 언어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진 두 어형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언어 변화의 보편적 법칙’은 이기갑(1981)에서의 그것과는 상충되게 마련인 것이다.

또, 한동완(1986)에서처럼 「一았一」의 기능이 17세기 정에 와서야 완성되었다고 보게 되면, 이미 15세기 당시에 현대어의 「一았一」과 똑같은 「一았一」의 의미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17)과 같은 자료를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一엇一」의 분포 범위가 현대어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의미 기능이 현대어와 달랐다고 볼 수는 없는 증거가 (17)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一아잇一」의 구조적 차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즉 17세기의 ‘니벼 있다’는 조동사 구문으로서 이 당시에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

은 ‘니벗다’의 마찬가지로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양자는 그 상(aspect)과 서법(modality)<sup>10)</sup>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조동사구문의 일반형인 V<sub>1</sub>어V<sub>2</sub>형에서 V<sub>2</sub>의 어휘적 의미는 보통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sub>2</sub>가 가지고 있는 상적 요소(aspect)나 서법요소(modality)는 남아서 V<sub>1</sub>에 첨가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 국어의 예에서 수없이 보게 된다.

- (18) a. 철수가 그 과자를 먹었다.  
b. 철수가 그 과자를 먹어 버렸다.

‘버리다’의 어휘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18)a와 (18)b의 차이는 어휘의미적 층위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18)a와 (18)b를 말하는 화자는 ‘철수가 과자를 먹은’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른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적판적으로 알게 된다. 즉, (18)a와 (18)b는 ‘먹는 행위 자체의 수행 상태나 정도(aspect), 또는 이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modality)에 있어서 서로 다른 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조동사 ‘버리다’가 ‘먹다’로 표현되는 행위에 대하여 첨가시켜 놓은 상(aspect)과 태도(modality)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다시 17세기로 눈을 돌리자. ‘니버 잇다’와 ‘넙고 잇다’는 ‘완료’와 ‘완료지속’이라는 어휘의미적 층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니버 잇다’와 ‘니벗다’는 상과 서법이라는 문법범주 층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넙고 잇다’, ‘니버 잇다’, ‘니벗다’는 각각 ‘완료지속’, ‘잇다’의 상과 서법이 첨가된 완료, 단순한 완료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 의미 층위 및 문법범주 층위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니버 잇다’와 ‘넙고 잇다’가 200년 이상 가능한 층들이 없이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상과 서법은 그후 계기적 구조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一어잇一」의 조동사문구조는 점차 그 존재 가치를 잃어 갔을 것이다.

10) 국어의 서법(modality)은 맷음씨 끝에 의하여 나타나는 서술, 의문, 명령, 청유 등의 두형과 안맺음씨 끝에 의하여 나타나는 확인(확신), 추측, 의지 등의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서법이란 이런 유형과는 별도로 화자의 모든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남기심(1978) 참조.

## III. 결 론

위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본고에서 애초에 의도했으나 다루지 못한 문제는, 「고잇」의 세력 확장과 결합 동사의 통사적 특성인 [transitive]라는 자질은 언중의 문법 의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필연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인데 끝내 확신할 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① 15세기어의 「아잇」과 「앳」은 자유변이형의 관계에 있었다.  
 ② 「아잇」 결합형은 원래 「아」가 ‘완료’를 「잇」이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료지속’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형이었다. 그러나, 15세기에서는 ③과 같이 세가지의 서로 다른 변화의 소성을 가지는 어형들로 분화되었다.

③ 15세기어의 「아잇」 결합형은 「앳」으로의 어형 변화 과정을 밟으면서 ‘완료’만을 나타내는 형(Z형)과, 중의성(‘완료’, ‘완료지속’)을 가지고 존속하다가 「앳」의 확립과 더불어 완료 표시의 기능은 점차로 「앳」으로 넘기고 그 자체는 주로 ‘완료지속’만을 나타내게 된 형(X, Y형)으로 대별된다. 후자는 다시 「고」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점차 「고잇」 형으로 교체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형(Y형)과, 그대로 오늘날의 「아잇」에 이어지는 형(X형)으로 나누어진다.

④ ③과 같은 분화를 초래한 원동력은 「아잇」에 결합되는 선행동사의 상적 특성(I, II 및 III형)과 통사적 특성([transitive])이었다.

⑤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완료’를 나타내는 「아잇」은 조동사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X, Y, Z 어느 형을 막론하고), 이들은 선행 결합 동사에 ‘잇다’의 상(aspect)과 서법(modality)을 첨가시킴으로써 단순한 ‘완료’ 표시의 「앳」과는 다른 문법범주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문법범주의 차이는 ‘완료’의 「아잇」과 「앳」이 200년 이상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⑥ 조동사문의 「아잇」이 표현한 상과 서법은 ‘완료지속’의 계기적 구조의 「아잇」에 의해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계기적 구조>조동사문구조>새로운 형태소(「앳」)의 형성’이라는 변천의 단계는 「앳」의 형성으로서 이미 그 소임을 다했으므로 현대어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조동사구문

「一아잇一」의 소멸과정과 그 양상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0): 국어 전형상 형태의 쳐소론적 해석, 이학연구, 제16권 제1호.
- (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탑출판사)
- 김종태(1685): 15세기 국어의 안罵음씨끝 「아/이」, 「가/거/나」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2집.
- (1986): 「一아 있다」, 「一고 있다」 조동사구문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3집.
- 김홍수(1977): 계기의 「一고」에 대하여, 국어학, 5집.
- 나진수(1971): 우리 말의 때때김 연구(과학사).
- 남광우(1971): 증보 고어사전(일조작).
- 남기순(1978):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탑출판사).
- 이기갑(1981): 15세기 국어의 상태지속상과 그 변천, 한글, 173, 174 이후름.
-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탑출판사).
- 이승년(1961): 중세 국어 문법(율유문화사).
- 이현규(1981): 국어 전용어의 사적 연구, 한국어문론집 I.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 한동완(1986): 과거시제 「잇」의 통지론적 고찰, 국어학 15집.
- 허웅(1977):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국어 때때김의 연구, 세립한국학논총1집,
- (1979): 17세기 국어 때때김법 연구, 한글, 164호.
- (1981): 우리 옛 말본(샘문화사).
- Anderson J. M. (1973): An Essay Concerning Aspect. Mouton, The Hague.
- Chafe W.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